

제 1 교 시



2015학년도 해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 국 어 영 역

A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군 사 관 학 교

관  
망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낙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혼난 적도 많은데요, 여러분도 뒷골목 벽이나 책상에 몰래 낙서해 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낙서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고 정제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 하지만 오늘 저는 낙서의 또 다른 얼굴, 그래피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료 1>

여러분, 그래피티라는 말이 좀 낯설죠? 그래피티는 낙서를 예술로 만들어낸 하나의 미술 장르이자 기법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 이런 거, 하실 겁니다. (<자료 1>을 제시하며) 이처럼 그래피티는 벽에 페인트로 자유롭게 그리는 것으로, 미술관이 아닌 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피티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그라피아토(graffiato)로 ‘긁는다’는 뜻인데요, 긁거나 그리는 것은 그 연원이 원시 시대의 벽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오래된 표현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960년대 뉴욕 거리에 낙서들이 범람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골칫거리가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위험

을 감수하면서까지 몰래 그래피티를 그리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것은 온갖 광고판들로 점령당한 도시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남기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도심 공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래피티의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에 그래피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는 하나의 작업이 있습니다. ㉢ 여기를 보시죠. (<자료 2>를 제시하며) 2010년 8월 베를린 도심 건물에 그래피티가 그려지는 영상입니다. 잠시 감상해 볼까요? (시간을 준 후)



<자료 2>

이 작업은 레이저 포인터, 카메라, 프로젝터를 이용한 ‘디지털 그래피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건물 벽면에 그림을 그리면, 카메라와 프로젝터가 이 움직임을 캡처하는 동시에 건물 벽면에 투사하여, 보신 것처럼 우리 손이 그리는 대로 글자나 그림이 건물에 나타나게 되죠.

더구나 이 작업은 그래피티가 흔히 그려졌던 뒷골목이 아니라 고층 건물과 같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도되었습니다. 가상적이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한밤중에 그래피티를 그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표현의 도구를 제공한 셈이죠. 그것도 위압적인 도심 건물에 말입니다. ㉣ 상상만으로도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한 보신 대로 완성된 결과물로서의 그래피티가 아니라 그래피티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손의 움직임을 재현한 점도 이 작업의 특별한 점이지요. 자판과 화면 터치 기능으로 퇴화하는 우리 손의 기능을 다시 일깨워 준 착한 테크놀로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그래피티와 디지털 그래피티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 저는 이러한 시도들이 삭막한 도심 공간의 숨통을 틔워 줄 거리 예술, 공공 미술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청중 분석’에 따른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중 분석		발표 전략
낙서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친근감을 형성하고 공감의 폭을 넓힌다. .... ①
낙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	낙서의 부정적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고 그래피티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다. .... ②
그래피티를 봤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	<자료 1>로 그래피티를 제시하여 청중의 경험을 환기한다. ... ③
그래피티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	그래피티의 어원을 언급하여 이해를 돕는다. .... ④
디지털 그래피티는 흔히 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	<자료 2>로 실제 작품 영상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 ⑤

##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발표에서 다룰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음 내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③ ㉢: 제안을 통해 청중의 주의를 시각 자료로 돌리고 있다.  
 ④ ㉤: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⑤ ㉥: 발표를 마무리하며 전망을 덧붙이고 있다.

## 3.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굵거나 그리는 행위는 그 연원이 아주 오래되었군.  
 ② 그래피티가 자유로운 정신을 상실한 것이 문제로군.  
 ③ 도심 공간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그래피티는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군.  
 ④ 디지털 그래피티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된 그래피티라고 할 수 있군.  
 ⑤ 그리는 과정을 재현한 것은 디지털 그래피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군.

[4 ~ 5] 다음은 세 학생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민규 : 경아야, 먼저 와 있었구나. 시간 내 줘서 고마워.

경아 : 응, 할 말 있다더니 무슨 일이야? 지영이도 같이 왔네, 안녕?

지영 : 응, 오랜만이야.

민규 : 경아야, ㉠ 다름이 아니라 지영이랑 나랑 영화 토론 동아리 하는 거 알지? 우리 동아리에서 이번 여름 방학에 선생님들 모시고 토론회를 여는데 같이 하자.

경아 : ㉡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난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아. 영화는 혼자서 즐기는 게 더 좋거든. 그냥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나?

민규 : 영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은 점이 많아. 내가 놓친 장면의 의미도 생각하게 되고, 나만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하는 데서 위안도 얻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거든. 이만한 공부가 없다 싶어. ㉢ 그렇지?

지영 : 응, 맞아. 더구나 이번 방학엔 영화와 문학을 주제로 하는데, 너 그 분야에 관심 많지 않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경아 : 그래? 음, 그래도 용기가 안 나네.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서툴기도 하고.

지영 :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너도 내 성격 알잖아.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

민규 : 난 방학마다 참여해서 이번에 다섯 번째인데 어떤 때보다 프로그램이 좋아. 네가 좋아하는 김○○ 선생님도 참석하실 건데. 우리 같이 하자.

경아 :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 볼게. ㉣ 그러나저러나 너흰 방학 때 다른 계획은 없니? 난 벌써부터 해야 할 공부 때문에 걱정이다.

지영 : 그러게 말이야. 나도 밀린 공부랑 과제물 때문에 정신없을 것 같아.

민규 : 다 그렇지 뭐. ㉤ 그건 그렇고, 그럼 영화 토론 같이 하기로 한 거다.

경아 : 그래, 알았어. 어떤 작품들이야?

4. <보기>를 참고할 때 ‘민규’와 ‘지영’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설득 전략은 화자, 청자, 메시지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우선 ㉠ 화자 측면에서는 화자의 권위, 지식, 열정, 경험 등이 화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여 설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청자 측면에서는 청자의 요구나 관심을 파악하고, 청자와의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 ㉢ 메시지 측면에서는 메시지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화자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① 민규가 ‘다섯 번째 참여’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② 민규가 ‘김○○ 선생님도 참석하실’ 것임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화자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③ 지영이가 ‘나도 처음엔 그랬’음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청자와의 심리적 일체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④ 지영이가 ‘영화와 문학을 주제로’ 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청자의 요구나 관심을 환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⑤ 민규가 ‘위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화의 화제를 제시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다른 대화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④ ㉣: 화제를 새로운 화제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 ⑤ ㉤: 맞장구를 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 [6 ~ 8] 다음은 학생이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회장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침 독서 시간 운영’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 학생 대의원 회의에서는 아침 독서 시간 운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정규 수업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고 있는 자율 학습 대신 전교생이 독서를 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과 공부에 바빠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하니, 우리 학교도 이를 도입하여 독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생활화하면 사고력과 창의력이 증진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은 저희들의 진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아침 독서 시간을 통해 전교생이 독서 습관을 키운다면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아침 독서 시간 운영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제안에 대한 여러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니 학우들은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 6. 밑줄에서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가 아침 독서 시간 운영에 관한 여러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것에서, 작문은 공동체 구성원과 의 의사소통 과정임을 알 수 있다.
- ② 글쓴이가 아침 독서 시간 운영을 제안하기 위해 글을 쓴다고 밝힌 것에서, 작문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지향적 활동임을 알 수 있다.
- ③ 글쓴이가 아침 독서 시간 운영에 관한 학생 대의원 회의 논의 내용을 서술한 것에서, 작문은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 과정이면서 회귀적 과정임을 알 수 있다.
- ④ 글쓴이가 학생들이 독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침 독서 시간 운영을 제안한 것에서, 작문이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글쓴이가 학생 대의원 회의의 결과에 따라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아침 독서 시간 운영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것에서, 작문이 사회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밑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lt;보기&gt;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lt; 보 기 &gt;

## (가) 학교 신문에 실린 기사 중 일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서 실태를 조사하였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연평균 독서량은 14.1권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평소 책을 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62.1%가 ‘학과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고 대답했으며, 21.7%의 학생이 ‘책 읽기 습관이 들어 있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다.

## (나) ‘아침 독서 시간’ 운영에 관한 통계

## 1.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가?

(전국 초·중·고 학교 대상)

운영하고 있다	2010년	55.4%
	2013년	69.6%

## 2. 아침 독서가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가?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대상)

도움이 된다	2010년	78.7%
	2013년	80.5%

## (다) 전문가 인터뷰

“독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면서 독서가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으니까요. 최근에는 독서 습관 형성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의 독서 습관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 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성인의 약 70%가 청소년기의 독서 습관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가정 및 직장 생활을 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독서 습관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학생들의 지속적인 독서 활동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 ① (가)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학생들이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의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독서 활동이 학생들의 진학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한다.
- ④ (가),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아침 독서 시간 운영을 통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강한다.
- ⑤ (나),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 아침 독서를 통해 형성된 독서 습관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8. 한 학생이 <보기>에 따라 윗글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1. 학생회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을 먼저 밝혀야지.
2. 제안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해야지.

- ① 우리 학교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싶어도 시끄러운 분위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②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책을 찾아 읽고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독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서를 통한 사고력과 창의력 증진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③ 저는 독서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책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책을 골라서 어떤 방식으로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가 중요하다고만 말할 게 아니고 독서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④ 아침 독서를 통해 책 읽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졸음을 쫓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도서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책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⑤ 아침 독서 시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자율 학습 대신 아침 독서를 하자는 제안은 학생 대의원 회의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의 생각일 뿐 우리들 모두의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학급 회의를 통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김누리 학생은 작문 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쓰기’라는 과제를 수행했다.

※ 김누리 학생의 수필

이번 설 전날,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을 때의 일이다.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귀엽게 생긴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다. 아기는 젓꼭지를 물다 이내 울음을 터트리곤 했는데, 주변 소리가 성가신 듯했다.

어느새 아기 응가 냄새가 폴폴 나기 시작한다. 울음 끝에 일을 보고 만 것이다.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겠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기저귀를 갈기 시작한다.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 마치 파도타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그 모양이 꼭 냄새가 번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결국 직원이 가서 무슨 말을 하자 아저씨는 화를 내며 아기를 안고 나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집에 돌아오는 길, 어머니께선 ㉡ 고약한 냄새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마트 직원들이 곤란했겠다며, 아저씨의 에티켓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 꼼꼼히 생각해 보니,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았다. 명절 선물을 사려고 했을 테지. 엄마는 왜 없었을까. 엄마가 있었다면 수유실로 갔겠지. 그렇지만 응가는…… 그래, 그 마트 남자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없었다. 그렇다고 변기 뚜껑 위에 아기를 눕힐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아저씨는 모유 수유실도,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다. 모유 수유실도 기저귀 교환대도 없었지만, 엄마들이 뒤돌아 앉아 아기들의 배를 채워주고, 기저귀를 갈아줄 만한 공간은 어디든 있었으니, 널린 게 요람이었다. 우선은 도시 공공시설에 아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실을,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확대해야겠지만, 그런다고 계절이 돌아오듯 아기들이 행복했던 시절이 돌아올까. 아기 전용 공간이 늘어나지만 도리어 아기에게 허용된 공간은 줄어들고 있는 이 ㉣ 케변에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야 했다.

가장 행복했어야 하는 존재지만, 충분히 배려 받지 못했던 그 아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 물론 그 아저씨에게 뭐라 말을 건넸던 직원처럼 우리도 할 일은 해야 하겠지만, 힘차게 기저귀를 풀어헤치던 아저씨의 당당한 모습 뒤로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 모습이 떠올랐다. 아, 그 사이에 내가 있었구나!

9. 다음은 뒷글을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전략과 구체화 방안이다. 뒷글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 글쓰기 전략 >	<구체화 방안>
사건을 새롭게 해석한다.	⇒ • 사건을 아저씨의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 .... 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 • 현재형 종결 표현과 동작 묘사를 통해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한다. .... ② • 비유법을 사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인다. .... ③
성찰한 내용을 제시한다.	⇒ •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예상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 평범한 사건에 내재해 있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밝힌다. .... 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한편’으로 고쳐 쓴다.
- ②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고약한 냄새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로 고쳐 쓴다.
- ③ ㉢은 맞춤법에 맞도록 ‘곰곰이’로 고친다.
- ④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역설’로 바꾼다.
- ⑤ ㉤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11.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점)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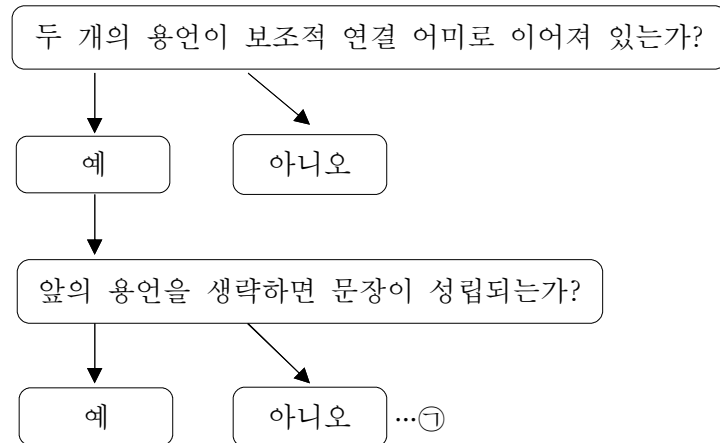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            |             |            |
|------------|-------------|------------|
| · 발이랑[반니랑] | · 늦여름[느너름]  | · 술하다[수타다] |
| · 국물[궁물]   | · 좋으면[조:으면] |            |

- ① ‘발이랑’이 발음될 때에는 첨가되는 ‘ㄴ’으로 인해 앞의 자음이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② ‘늦여름’이 발음될 때에는 ‘ㄷ’이 탈락하면서 ‘ㄴ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③ ‘술하다’가 발음될 때에는 ‘ㅌ’이 ‘ㄷ’으로 교체된 후 이어지는 음운과 만나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④ ‘국물’이 발음될 때에는 ‘ㄱ’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⑤ ‘좋으면’이 발음될 때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나는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12. <보기 1>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구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 2>의 ㉠~㉤ 중에서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1 > —



— < 보 기 2 > —

- 그 종이는 휴지통에 잘 ㉠ 찢어 버려라.
- 나도 책을 많이 ㉡ 읽고 싶다.
- 잠은 집에 ㉢ 가서 자야지.
- 그것만 좀 더 ㉣ 먹어 보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1 > —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안긴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하나의 ‘절’이 되는데, 이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 보 기 2 > —

오늘은 ㉠ 날씨가 아주 덥다. 하지만 큰맘 먹고 집을 나선 이상, ㉡ 지금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는 ㉢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 날씨가 참으로 덥다고 되뇌었다. 순간 ㉤ 소리도 없이 다가온 자전거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 ① ㉠: 앞의 주어를 고려할 때 안은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  
 ② ㉡: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 안은문장과의 공통 주어가 생략되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다.  
 ④ ㉣: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 주체의 말이나 생각을 읊기는 인용절이다.  
 ⑤ ㉤: 부사형 어미 ‘-이’의 도움을 받아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14. 다음은 ‘이르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르다<sup>1</sup>** [이르러, 이르니] 「동사」

- ㉠ 【...에】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 【...에】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이르다<sup>2</sup>** [일러, 이르니] 「동사」

- ㉢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하다.  
 ㉣ 【...을】 【...에게 ...을】 【...에게 -고】 【...에게 -도록】 타이르다.  
 ㉤ 【...에게 ...을】 【...에게 -고】 미리 알려 주다.  
 ㉥ 【...에게 ...을】 【...에게 -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윗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하다.  
 ㉦ 【...에게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

**이르다<sup>3</sup>** [일러, 이르니] 「형용사」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빠르거나 앞서다.

- ① ‘이르다<sup>1</sup>’, ‘이르다<sup>2</sup>’, ‘이르다<sup>3</sup>’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으니 동음이의어이군.  
 ② ‘이르다<sup>1</sup>’과 ‘이르다<sup>2</sup>’는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개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둘 다 다의어이군.  
 ③ ‘이르다<sup>1</sup>’과 ‘이르다<sup>2</sup>’는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활용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④ ‘이르다<sup>1</sup>’ ㉠과 ‘이르다<sup>2</sup>’ ㉢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군.  
 ⑤ ‘이르다<sup>3</sup>’의 용례로 ‘그는 항상 나보다 빨리 결승점에 이르렀다.’를 들 수 있겠군.

15. 다음의 ㉠~㉡에 사용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선생님 아까 수업 마치시고 일찍 퇴근하시는 것 같던데.
㉡	<가게 점원이 손님에게>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고모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	<학교 후배의 집에 전화한 선배가 후배의 초등학교 아들(철호)에게> 철호야, 잘 있었어? 아저씨인데, 아빠 지금 집에 계시니?
㉤	<장모가 사위에게> 잘 가게.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 조심하게.

- ① ㉠: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말하고 있다.
- ② ㉡: ‘나오셨습니다’는 ‘커피’를 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간접 높임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나왔습니다’로 고쳐 말해야 한다.
- ③ ㉢: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특수 어휘 ‘잡수시다’를 통해 높여 말하지만,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인 고모에 대해서는 ‘하였습니다’와 같이 말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고 있다.
- ④ ㉣: 화자의 후배이지만 청자인 아들의 입장에서는 높여 말해야 하는 아버지이므로, 화자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후배를 높여 말하고 있다.
- ⑤ ㉤: 화자인 장모는 사위를 높여 말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직접적으로 낮춰 말하기가 어색하므로 두루 높임의 하계체 명령형 어미를 통해 사위를 높여 말하고 있다.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흔히 방언을 한 언어의 하위에 속하는 변이형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몇 개의 사례만 살펴보면 이러한 관계 인식이 그다지 명료하지 못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는 별개의 언어인가, 아니면 영어라는 한 언어의 방언들인가? 또한 호주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아마도 순수하게 언어학적인 기준만을 가지고는 대상 언어가 개별 언어인지 아니면 한 언어의 하위 방언인지를 명료하게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의 특히 유럽의 많은 언어학자들은 언어와 방언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이 둘을 ‘코드(code)’라는 하나의 중립적인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어,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등이 모두 동일한 자격으로 이 코드에 해당되는 것이다. ‘코드’는 방언이라는 용어에 숨어 있는 부정적 함축은 물론 언어와 방언 간의 모호한 계층 관계로 인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에 따라 코드는 세계의 언어학계에서 언어와 방언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는 보통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개의 코드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현재 처한 사회적 상황이나 담화 맥락 등을 고려하여 특정 코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을 ‘코드 선택(code choice)’이라 한다. 이 코드 선택은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코드 선택과 국가적 차원의 코드 선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개별 화자가 대화 참여자나 화제 등과 같은 미시적인 대화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지로 특정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재미 교포 학생이 학교에서 한국 친구와 대화할 때 한국어와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나 회사원이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표준어와 지역 방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후자는 국가가 자국의 언어 상황이나 정치·경제적 이익 관계 또는 국제 외교 관계 등의 거시적 차원을 고려하여 특정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 최근 우크라이나에 친유럽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고 크림 반도를 러시아군이 장악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대한 일종의 반감의 표시로 자국 내에서 러시아어가 가지고 있던 제2공식어로서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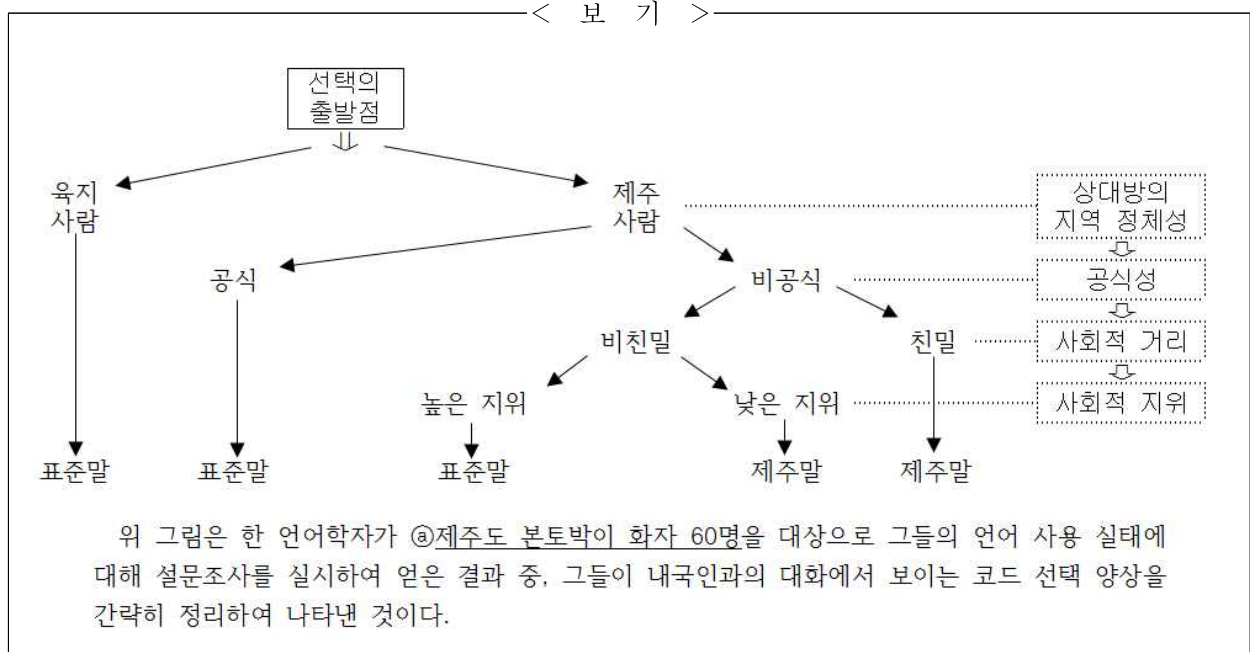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이미 특정 코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도중에 다른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화자가 이제껏 사용해 왔던 코드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현상을 ‘코드 전환(code switching)’이라 한다. 이 코드 전환은 그것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에 따라 상황적 코드 전환과 인식적 코드 전환의 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상황적 코드 전환은 대화 참여자, 화제, 맥락 등과 같은 담화 구성 성분의 변화, 즉 외적 동기에 의해서 화자가 다른 코드를 새로이 선택하게 될 때 발생한다. 딸과 표준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한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자신의 고향 방언인 경상도 말을 사용해 통화하는 모습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식적 코드 전환은 비록 담화 구성 성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화자가 전략적으로 특정 의사소통 효과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 즉 내적 동기에 의해서 다른 코드를 사용하게 될 때 발생한다. 표준말로 강의를 하던 선생님이 학생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내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언을 사용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공식적으로 한국어만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언어와 방언 사이의 위계 관계도 비교적 명료하기 때문에 코드 개념이 아직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수가 점점 늘어나고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러 코드들이 상호 접촉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이제는 우리에게도 개인적 차원의 코드 선택이나 코드 전환 또는 국가적 차원의 코드 선택에 관한 문제들이 머지않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16.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언어학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언어와 방언을 명료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 ②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은 언어나 방언 대신 코드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③ 개별 화자들은 사회적 상황이나 담화 맥락을 고려하여 특정 코드를 선택해 사용한다.
- ④ 대부분의 화자들은 담화 구성 성분상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상황적 코드 전환을 한다.
- ⑤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드 선택이나 코드 전환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17. 밑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표준말과 제주말의 두 가지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군.
- ② 상대가 제주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표준말을 사용하는군.
- ③ 네 개의 담화 고려 요소 중 상대와의 사회적 지위 관계를 제일 먼저 고려하는군.
- ④ 제주 사람과의 대화 중에 공식성이 변화하게 되면 코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겠군.
- ⑤ 상대와의 사회적 거리를 의도적으로 가깝게 조정하기 위해 코드 전환을 할 수도 있겠군.

18. 밑글을 읽은 독자가 ㉡의 상황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도 별개의 언어인지 아니면 한 언어의 방언인지가 불명확했군.
- ②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라이나어보다 러시아어를 코드 선택해서 사용하는 이가 더 많았겠군.
- ③ 우크라이나는 언어가 아닌 정치, 군사, 외교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코드 선택을 하였군.
- ④ 러시아에는 러시아어에서 우크라이나어로 상황적 코드 전환을 시도하는 이가 거의 없었겠군.
- ⑤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어에서 러시아어로의 인식적 코드 전환이 자주 발생하겠군.

##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색 지각 과정은 망막의 추상체에서 시작된다. 추상체는 감광 색소에 따라 L, M, S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L 추상체는 빛의 스펙트럼 중 적색(R)에 가까운 장파장에서, M 추상체는 녹색(G)에 가까운 중파장에서, S 추상체는 청색(B)에 가까운 단파장에서 빛을 최대 흡수하고 주변 파장으로 갈수록 빛 흡수율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추상체가 빛을 흡수함으로써 전기적으로 흥분하여 신호를 방출할 때, 우리는 빛을 지각할 수 있다. 예컨대 황색은 L, M 추상체가 크게 흥분하고 S 추상체가 조금 흥분할 때 지각되는 색이다. 반대로 청색은 S 추상체가 크게 흥분하고, L, M 추상체가 조금 흥분할 때 지각되는 색이다. 세 개의 추상체가 모두 강하게 흥분할 때에는 백색이 지각되는데, 이는 청색 빛과 황색 빛을 겹쳤을 때 백색광이 지각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L, M, S 추상체의 발견은 적, 녹, 청 삼원색 이론을 뒷받침해 주었다. 삼원색 이론은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의 경우, 파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달린 세 개의 광원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실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 이론은 인간에게 빛을 지각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으며, 색상이 빛의 파장에 내재한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색 지각의 다음 단계는 망막에 분포된 신경절 세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백만 개의 신경절 세포들은 7백만 개의 추상체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수렴하여 기초적인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연산이 가능한 것은 추상체에서 뇌로 이르는 수직적 경로의 각 요소들마다 그것들을 상호 연결하는 수평적 연결이 더해져 일종의 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수평적 연결은 수직적 연결을 따라 흐르는 전기신호를 통과시키기도 하고, 합산하여 흥분시키기도 하며, 감산하여 억제시키기도 한다.

이 회로들의 기능은 대립과정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일찍이 실험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착시 현상을 관찰하였다. 적색 물체를 오랫동안 응시한 후 흰색 배경을 바라보면 녹색 잔상이 남는 착시 현상이 생기고, 그 반대로의 착시 현상도 생기며, 청색과 황색의 조합에서도 그러했다. 이러한 실험에서 주어진 색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잔상의 색은 ‘억제에 대한 보상 반응’으로 설명되었고, 이는 적색과 녹색에 대한 지각과 청색과 황색에 대한 지각이 각각 단일한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가설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설은 대립쌍의 한 쪽 빛에는 흥분하고 다른 쪽 빛에는 흥분을 억제하도록 작용하는 아래 네 가지 신경절 세포 회로의 발견으로 증명되었다. 이 회로들은 선택적인 신호처리를 통해 색의 번짐을 막음으로써 사물을 더욱 선명히 볼 수 있게 만든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R+G- 세포 회로	G+R- 세포 회로	B+Y- 세포 회로	Y+B- 세포 회로
※ 삼각형은 L, M, S 추상체를, 원은 신경절 세포를, 화살표는 색 지각 정보가 신경절 세포의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人 기호는 흥분성 연결을, — 기호는 억제성 연결을 의미한다. 세포 회로의 이름은 적(R), 녹(G), 청(B), 황(Y) 네 가지 색에 대해 흥분성(+)으로 반응하는지, 억제성(-)으로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단순화를 위해 다른 요소들은 생략하였다.			

이 회로 그림을 놓고 황색(Y) 빛이 눈에 들어올 때 ‘Y+B-’ 회로의 반응을 살펴 보자. 앞서 설명했듯, 황색은 L 추상체와 M 추상체를 크게 흥분시키고 S 추상체를 조금 흥분시킨다. 그 결과 L, M 추상체에서 모인 큰 전기 자극이 흥분성 연결(+)을 통해 더해지고, S 추상체에서 발생한 작은 전기 자극이 억제성 연결(-)을 통해 감해져, 최종적으로는 흥분성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포 회로들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에 대해 서로 다른 신호의 조합들을 만들어 뇌로 보내게 된다.



## 19. 빛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색상은 빛의 파장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
- ② L, M, S 추상체가 모두 강하게 흥분하면 백색이 지각된다.
- ③ 수평적 연결은 수직적 연결을 따라 진행되는 전기신호를 조절한다.
- ④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빛의 조합으로 모든 색상을 만들 수 있다.
- ⑤ M 추상체는 중파장에서 빛을 최대로 흡수하고, 주변 파장으로 갈수록 빛을 덜 흡수한다.

## 20. 빛글을 참고할 때 &lt;보기&gt;의 ㉠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lt; 보 기 &gt; —

전자눈은 인간의 눈을 모방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눈을 말한다. 인간에게 이식이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전자눈이 되기 위해서는 ㉠ 생체 눈의 구조와 기능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전자눈은 조악한 수준이다. 외양과 크기는 그럴싸하지만 망막의 형태를 모방하여 RGB센서\*들이 집적된 감광장치를 곡면 모양으로 만들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 RGB 센서: 적색(R), 녹색(G), 청색(B) 빛을 받아 전기 신호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R, G, B 센서는 각각 생체 눈의 L, M, S 추상체에 대응한다.

- ① 개별 센서들의 신호를 연산하는 회로를 만들어 감광장치에 넣는다.
- ② R, G센서를 연결하여 B센서와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회로를 만든다.
- ③ 개별 센서에서 뇌로 향하는 수직적 연결에 수평적 연결을 가미한다.
- ④ 대립과정 이론을 적용하여 사물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 ⑤ 눈의 추상체 개수만큼 RGB센서를 확보한 후 이를 일대일로 뇌에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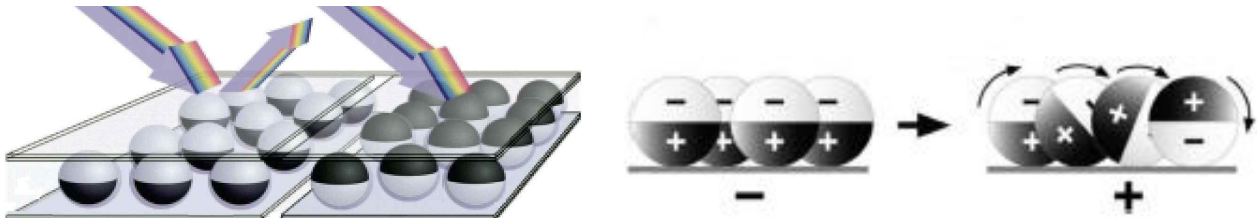
## 21. 적색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세포 회로의 반응을 옳게 제시한 것은?

	R+G- 세포 회로	G+R- 세포 회로	B+Y- 세포 회로	Y+B- 세포 회로
①	흥분	억제	흥분	억제
②	흥분	억제	억제	흥분
③	흥분	흥분	억제	억제
④	억제	흥분	흥분	억제
⑤	억제	억제	흥분	흥분

[22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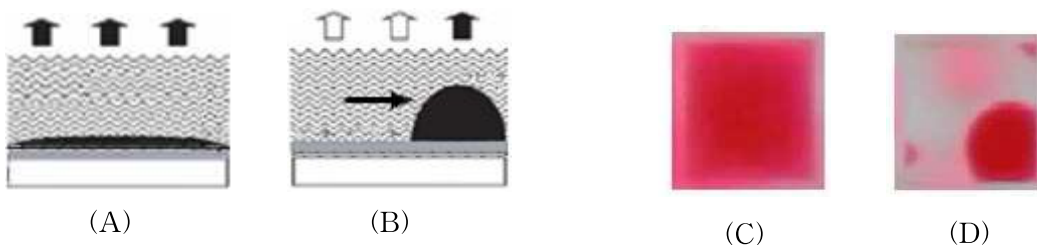
전자종이(Electronic Paper)는 종이처럼 얇은 재질과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정보의 저장, 변환 및 송수신 등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달리 전자종이는 기기 내부에 발광을 위한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반사형 디스플레이로서 외광이 강한 야외에서도 읽기에 편리하며 낮은 전력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갖는다. 아울러 유리 기판을 사용하는 LCD와 비교할 때 다양한 기판에 구현이 가능하여 경량화 측면에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전자종이 관련 기술 중 하나로 전기영동 방식이 있다. 전기영동이란 유동성 매체 내에서 전하를 띤 물질들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그림 1>과 같이 두 패널 사이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띤 흰색과 검은색을 가진 반구를 합한 회전 공을 투명한 유체와 함께 분산시킨다.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공들이 회전하여, 흰색 부분이 위로 오면 빛을 반사하고 검은색 부분이 위로 오면 빛을 흡수하므로 원하는 영상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일단 한번 디스플레이 되고 나면 전압을 제거한 후에도 다른 전압을 가하여 다른 디스플레이 내용으로 바꿀 때까지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므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전압을 가해도 공의 위상을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어 이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특정 전압을 찾기가 어렵다. 만일 구동 전압이 너무 클 경우 공이 회전보다 직진을 먼저 하게 되어, 부분 회전한 상태로 안정화되는 등 구동의 불안전성이 존재한다. 또한 공은 유체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점과 컬러 표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색 필터가 필요하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림 1>

또 다른 전자종이 기술로 전기습윤 방식을 들 수 있다. 전기습윤 방식은 전압을 가하면 물의 표면 장력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물 분자는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금속에는 더 끌리는 힘이 생기게 때문이다. <그림 2>와 같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흰색 기판 위에 소수성 물질(절연체)을 코팅하고 (A)와 같이 물과 컬러 기름을 셀에 넣는다.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물이 기판 쪽으로 끌리면서 퍼지게 되어 기름 층을 한쪽으로 밀치게 되므로 (B)와 같이 기름이 뭉치게 된다. (C)와 (D)는 각각 (A)와 (B)를 위에서 본 그림이다. 기름이 밀쳐진 부분은 빛을 반사하므로 흰색으로 표현되게 된다. 이때 가해지는 전압 차가 클수록 기름 층이 좁은 영역으로 모이게 되므로 전압 차를 조절해 진하기를 달리할 수 있다. 기름 층은 들어오는 빛의 크기를 조절하는 셔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색을 표시하는 색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전기습윤 현상의 속도는 매우 빠르므로 전기습윤 디스플레이는 속도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기름 층과 물 층의 유체 층을 안정적으로 주입 및 보존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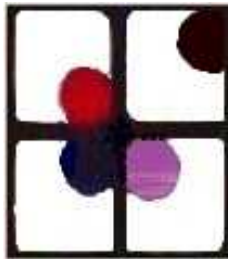

<그림 2>

## 22.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자종이는 외광이 강한 곳에서도 읽을 수 있다.
- ② 전기영동 방식의 회전 공은 직진은 하지 않으며 회전만이 가능하다.
- ③ 전기습윤 방식에서 전압을 가하면 물이 기판 쪽으로 끌리면서 퍼진다.
- ④ 전기영동 방식에서 회전 공의 반응 속도는 유체의 저항에 영향을 받는다.
- ⑤ 전기습윤 방식은 기름 층이 퍼진 정도에 따라 진하기가 다르게 표현된다.

## 23. 밑글과 &lt;보기 1&gt;을 참고하여 &lt;보기 2&gt;에서 적절한 설명만을 고른 것은?

— < 보 기 1 > —

(가) 전기영동 방식		(나) 전기습윤 방식	
㉠	㉡	㉢	㉣
			
회전 공의 흰색 반구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음.	회전 공의 검은색 반구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음.	컬러 기름이 한쪽에 뭉쳐 있음.	컬러 기름이 전체에 퍼져 있음.

— < 보 기 2 > —

㉠ (가)에 가해지는 전압을 높게 할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 (나)의 전압 차를 높이면 ㉢의 원 모양이 작아진다.  
 ㉢ ㉠의 상태에서 전압을 해제하면 ㉡의 상태로 변한다.  
 ㉣ ㉢의 상태에서 전압을 해제하면 ㉣의 상태로 변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판단은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감상이나 판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거나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덜 발달되었을 수도, 더 세련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흄(D. Hume)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흄은 예술적인 판단이란, 색이나 맛과 같은 지각 가능한 성질에 대한 판단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 <돈키호테>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마을 사람들이 포도주를 즐기고 있었는데 두 명의 ‘전문가’가 불평을 한다. 한 사람은 쇠 맛이 살짝 난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가죽 맛이 향을 망쳤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지만, 포도주 통 밑바닥에서 가죽 끈에 묶인 녹슨 열쇠가 발견되었다. 이 전문가들은 마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었던 포도주 맛의 요소들을 식별해낸 셈이다.

이는 예술적인 식별과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나 화음의 구성을 구별해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구도나 색 또는 명암의 대비, 중요한 암시를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세련된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또는 좋은 비평을 읽음으로써 계발될 수 있다. 이처럼 예술적 판단이나 식별이 계발될 수 있다 해도 의문은 남는다. 포도주의 맛을 알아챈 전문가들에게는 가죽 끈에 묶인 녹슨 열쇠가 있었지만, 예술 비평가들의 판단이나 식별이 옳바르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흄은 ‘진정한 판관(true judge)’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흄이 말한 진정한 판관은, 세련된 감수성과 섬세한 감각을 가졌으며 부단한 연습과 폭넓은 경험으로 식별력을 키운 사람이다. 그리고 편견이나 편애와 같은 작품 외적 요소들에서 벗어나 있으며, 당대의 일시적인 유행에도 거리를 두고 작품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술 작품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흄은 ‘시간의 테스트’를 넘어서, 즉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가로질러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들에 주목하였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 태도들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에 매혹되어 온 최고의 비평가들이 있어 왔다.

이처럼 예술 비평가들의 판단과 식별의 타당성은 이들이 갖춘 비평가로서의 자격, 이들이 알아보고 매혹된 위대한 작품들의 존재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흄의 생각은 분명 그럴듯한 점이 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와 카라바조, 고야, 렘브란트의 작품을 그 작품들이 창조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감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작품이 지닌 힘과 위대함을 증명해준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 자격을 갖춘 비평가들, 심지어는 최고의 비평가들에서조차 비평의 불일치가 생겨난다는 점이다. 흄은 이러한 불일치를 낳는 두 개의 근원을 지적했는데, 비평가 개인의 성격적인 기질의 차이가 그 하나이다. 또한 자격을 갖춘 비평가라 할지라도 자기 시대의 특정한 믿음이나 태도, 가정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불일치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살아있던 당시에는 갈채를 받았던 예술가의 작품이 시간이 흐르면서 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곤 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에게든 자격을 갖춘 비평가에게든 그런 작품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졌던 호소력은, 그 시대에만 특별했던 태도나 가정에 의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흄의 견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 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흄의 견해에 근거하여 순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 ③ 제기된 의문들과 관련하여 흄의 견해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④ 흄의 견해에 근거하여 통상적인 의문들에 내포된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다.
- ⑤ 흄의 견해에 근거하여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기존의 답변들을 비판하고 있다.

25. 밑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A: 오늘날 세계적으로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는 마티스, 고갱과 같은 ㉠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처음 전시되었을 당시, 이들은 ㉡ 소수의 비평가들을 제외하고는 ㉢ 학계와 전문가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당했다.

B: ㉣ 프랭크 브랭킨은 산업 윤리, 대영제국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이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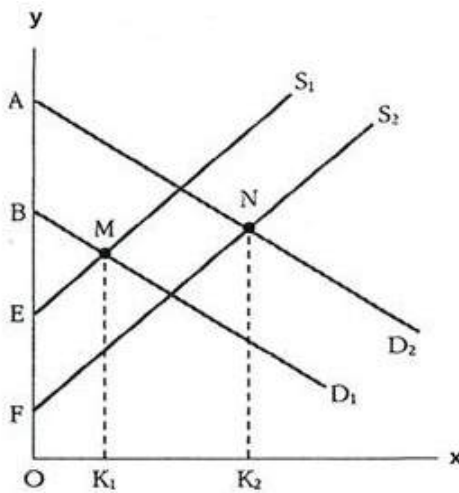
- ① ㉠에 대한 ㉡와 ㉢의 반응은 비평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② ㉠과 ㉣를 통해 예술적 판단과 식별이 계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 ③ ㉡는 ㉠의 가치를 알아본 ‘진정한 판관’이라 할 수 있다.
- ④ ㉣는 ‘시간의 테스트’를 넘어서지 못한 작가라 할 수 있다.
- ⑤ ㉤는 자기 시대의 특정 태도나 가정에 밀착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6. ㉠에서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마을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진단을 비웃었다.
- ② 마을 사람들은 포도주 맛의 요소들을 식별하지 못했다.
- ③ 포도주 통 밑바닥에서 가죽 끈에 묶인 녹슨 열쇠가 발견되었다.
- ④ 포도주의 이상한 맛에 대한 ‘전문가’들의 원인 진단이 서로 달랐다.
- ⑤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포도주 맛에 대해 불평을 했다.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자본 이론은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투자에 의해 인간에게 형성되고 체화된 지식 및 기능 등의 생산적인 힘을 인간자본이라 규정하고 인간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 그로 인해 포기된 소득 등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파악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게 결정되는 것은 인간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그림>

인간자본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게리 베커로,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하여 소득 격차를 설명하였다. 베커의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르면, <그림>에서 x축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을 나타내며 y축은 수요곡선일 때는 ‘한계수익’을, 공급곡선일 때는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한계수익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한 값이며 한계비용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값이다. 수요곡선 D는 우하향하는데 이는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량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기 때문이고, 공급곡선 S는 우상향하는데 투자량에 대한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D2는 D1보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이며 S2는 S1보다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다. 수요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 D2의 값 A가 D1의 값 B보다 큰 것은 능력이 우수한 사람에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급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의 S2의 값 F가 S1의 값 E보다 작은 것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비용은 부유한 사람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한계수익이 한계비용을 상회하는 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까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 때,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수요곡선의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되며 인간자본 투자의 총비용은 공급곡선 아래 부분의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인간자본 투자의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인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D1의 수요곡선과 S1의 공급곡선을 가진다면 K1까지 투자를 하므로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OBMK1, 총비용은 OEMK1이므로 순이익은 BEM이 된다.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라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투자 기회 측면에서의 공급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수요 조건, 즉 동일한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면의 차이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은 능력이 적은 사람의 수요곡선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소득 격차는 불가피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없다.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은 모든 사람의 타고난 능력은 비슷하므로 같은 양의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요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 조건의 차이, 즉 투자 기회에서의 차이에 의해 소득 격차가 야기된다고 본다. 부유한 사람은 유리하게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 가난한 사람의 공급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이것이 곧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축을 도출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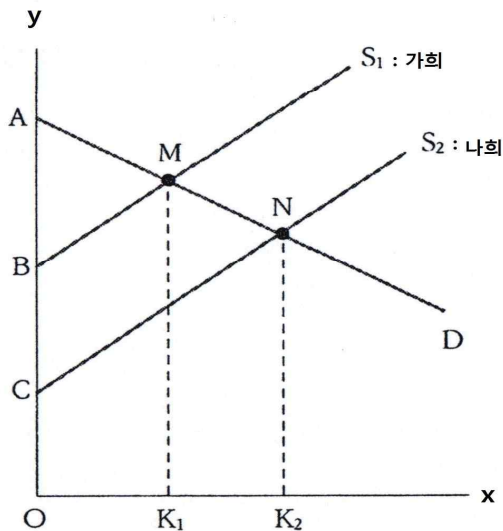
① 베커로 대표되는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이 사회·문화적 요인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학자들은 인간자본 이론을 지배적 이론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행정가들이 이 이론을 정책 입안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 2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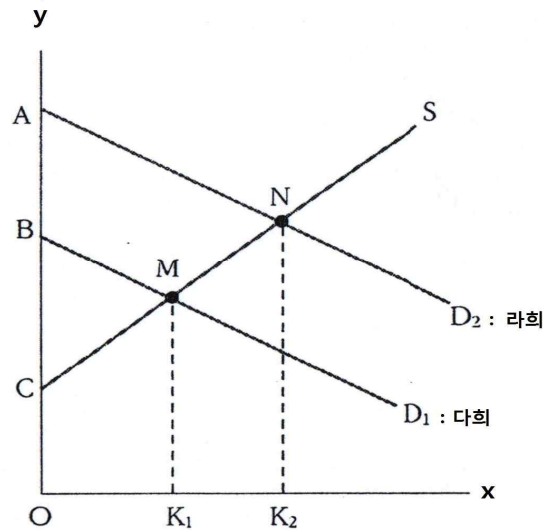
- ①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공헌을 하였다.
- ② 투자에 의해 형성되고 체화된 인간의 지식은 인간자본에 해당한다.
- ③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하여 소득 격차를 설명하였다.
- ④ 인간자본 이론에서는 인간자본 형성을 위해 포기한 소득을 배제하고 투자를 정의한다.
- ⑤ 베커는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밑글과 <보기>를 토대로 28번과 29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가)



(나)

단, 수요곡선인 D와 공급곡선인 S는 개인의 능력과 투자 기회의 차이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OAMK<sub>1</sub>은 '가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수익이다.
- ② (가)에서 OCNK<sub>2</sub>는 '나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비용이다.
- ③ (나)에서 BCM은 '다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순이익이다.
- ④ (나)에서 OK<sub>1</sub>은 '라회'의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이다.
- ⑤ (나)에서 ABMN은 '다회'와 '라회'의 소득 격차이다.

2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회’가 ‘나회’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가회’의 능력이 ‘나회’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 ② ‘가회’는 ‘나회’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 ③ ‘가회’와 ‘나회’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대안으로는 교육 기회 보장 정책이 있을 수 있다.
- ④ ‘다회’와 ‘라회’는 타고난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
- ⑤ ‘라회’는 ‘다회’에 비해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적으므로 저소득층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다.

30. <보기>를 근거로 하여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인도에서는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계급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하위 계급 노동자는 상위 계급의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같은 인간자본을 획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는다. 하위 계급 노동자가 상위 계급의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인간자본이 충분한 노동자라고 해도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 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교육을 통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인간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 ③ 노동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 등에 대한 파악 없이 소득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
- ④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회 구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 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인간의 지식과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목이 휘인 채 꽃 진 꽃대같이 조용히 춘향이는 잠이 들었다. 칼 위에는 눈물방울이 어롱져 꽃 이파리의 겹쳐진 그것으로 보였다. 그렇다, 그것은 달밤일수록 영롱한 것이 오히려 아픈, 꽃 이파리 꽃 이파리, 꽃 이파리들이 되어 떨고 있었다.

[A] 참말이다, 춘향이 일편단심(一片丹心)을 생각해 보아라. 원(願)이라면, 꿈속엔 훌륭한 꽃동산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을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슬기 다음에는 마치 저 하늘의 달에나 비길 것인가. 한결같이 그 둘레를 거닐어 제자리 돌아오는 일이나 맘대로 하였을 그것이다. 아니라면, 그 많은 새벽마다를 사람치고 그렇게 같은 때를 잠 깨일 수는 도무지 없는 일이란 말이다.

- 박재삼, '화상보(華想譜) - '춘향이 마음' 초(抄)' -

## 31.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춘향이의 마음에서 삶의 교훈을 얻고 있다.
- ② 화자는 다양한 관점으로 춘향이의 마음을 추측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춘향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이상을 발견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춘향이의 모습을 묘사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 ⑤ 화자는 춘향이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가늠하고 있다.

##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칼'은 '춘향'이 현재 처한 상황을 알려준다.
- ② 1연에서 '춘향'을 '꽃'에 비유함으로써 '눈물방울'은 '꽃 이파리'로 이어진다.
- ③ 1연의 '잠'은 2연의 '꿈속'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④ 2연의 '아니라면'은 1연의 '그렇다'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 ⑤ 2연의 '참말이다'는 '춘향'에 대한 서술의 진정성을 강화한다.

## 33. &lt;보기&gt;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lt; 보 기 &gt;

대상의 부재는 주체의 감정과 태도, 내면 공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움'은 공간을 뛰어넘어 부재하는 대상에 닿고자 하는 확산의 감정이며, '기다림'은 그 대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정지의 의지이다. 이러한 확산의 감정과 정지의 의지가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주체의 내면 공간은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원형(圓形)을 이루게 되며, 주체는 그 원형적 공간의 둘레를 돌 수밖에 없다.

- ① '춘향'의 '일편단심'은 확산의 감정과 정지의 의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정서라 할 수 있다.
- ② '슬기'는 '춘향'의 감정과 태도의 상호 작용이 소멸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하늘의 달'은 원형적 순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미지라 할 수 있다.
- ④ '둘레를 거닐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꽃동산'은 '춘향'의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⑤ '같은 때를 잠 깨'인다는 것은 행위의 순환과 반복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 초까지 아버지는 시내 공립 중학교의 서무과장이었다. 그런데 작년의 학기말을 끝으로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 점은 순전히 엄마 탓이었다. 엄마는 아버지 학교의 공금을 빼내 썼던 것이다.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처음부터 엄마의 농간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공금을 빼내어 사용(私用)으로 쓰다니. **공생원**인 아버지는 숫제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었다. 비단 그 문제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아버지는 소심하고 웅졸했다. 말이 없고 겁이 많았다. 이를 아버지는 전쟁 탓으로 돌렸다. 언젠가 아버지는, 고향을 잃을 때부터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구멍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고 자탄했다. 그러나 고향을 잃고 살기는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유는 타당치가 못했다. ㉠ 아버지는 저 유명한 금강산을 끼고 있는 강원도 통천군 두백리가 고향이었다. 들은 바로는 그곳에 배 열 척과 큰 어장까지 가진 재력 있는 수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방 전에는 일본서 전문학교까지 다녔다. 해방 후로는 서울서 대학에 적을 두었다. 전쟁이 나던 해 유월, 약혼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올라간 것이 그만 발이 묶여 버렸다. 그해 칠월 아버지는 고향서 징집을 당해 인민군 소위로 참전했다. 지난 봄, 어느 날 아버지는 나도 끼인 자리에서 형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나 난 공산주의가 원래 새, 생리에 맞지 않았어. 객관적으로 어느 주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그들은 매사에 너무 과격했거든. 마치 사나운 맹수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을 집단으로 기, 길들이려 덤벼 들었어. 그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로 버려 두지 않았다니깐. 혁명, 투쟁, 반동, 처단 아, 단어만 드, 들어도 얼마나 끔찍하니. 사람이란 다 개성이 다름으로 해서 가, 각자의 꿈과 소망이 다르듯, 그런 자유와 창의력을 나는 존중하지. 또 너들이 알다시피 인간이 생산과 노동 이외 사색도 피, 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꺾었다.

“아버진 역시 사색파시다, 이 말이지요. 너무 사색이 깊으셔서 결단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껌테기**. 오히려 소나 말처럼 잘 길들여진, 심지어 엄마에게까지 꿈쩍 못 하는 **노예**…….”

이제 형이 내 말을 꺾었다.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전쟁의 **희생자**야. 통일을 못 이루는 이 분단의 현실이 아버지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 갔어. 요컨대 아버지 삶의 근간을 끊어 버린 거야.”

“형, 잠깐만” 하고 내가 말했다. “교과서에서도 노래삼아 나오는 통일, 통일이란 말은 귀에 못이 박일 정도야. 그런데 뭐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다시피 지금 이 상태에서 저쪽 놈들과 무슨 대화가 통하겠어. 선생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공존하는 한 무력의 길 이외는 통일이 힘들다고 말했어. 나도 동감이야.”

“힘들기는 히, 힘들지. 그러나 누가 지금 토, 통일의 길을 포기하고 있어? 남북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통일을 막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아버지는 머리를 찢레찢레 흔들며 말했다.

[A]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지요. 아버지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통일을 위해 누가 전쟁을 원해요?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몇 할이 전쟁을 원하고 있겠어요? 모르긴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망쳐 버려요. 차라리 전쟁을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아요.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너희 세대는 왜 통일이 중요한지 몰라.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한 건 순전히 교육 탓이야.” 형이 강한 어투로 내 말을 반박했다.

“교육 탓만은 아니야. 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 사회가 저 저, 젊은 애들을 다른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게 하는 거야.”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말을 둘러댔다.

“저는 통일이 절실하다고 외치는 아버지나 형이 되기보단 차라리 통일을 모르는 쪽이 좋아요. 그리고 두 분을 절대로 닮지 않겠어요.” 내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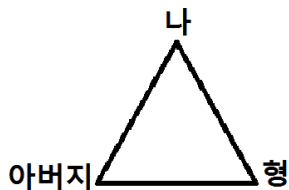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네 생각은 정직하지 못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아버지의 그 말에는 잘못이 없었다. 아버지는 늘 정직과 청렴결백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빼낸 공금을 보름 안으로 메워 놓겠다는 엄마의 허튼 약속을 절대 믿지 않았다. 그러자 엄마는 파산, 집단 자살, 그것도 아니라면 나 혼자 감옥에 가거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극단적인 위협조차 사양치 않았다. 그렇게 협박과 울음을 섞어 아버지를 설득시킨 것이다. 그 결과 겨우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B]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 돌아왔다. “이건 나, 날강도다. 이제 나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다. 끝장이다.” 아버지는 우리의 방으로 건너와 형과 나를 잡고 투정했다. 엄마는 그 돈으로 깨어지려는 계를 겨우 수습한 모양이었다. 아버지와 약속한 보름이 지났다. 그러나 엄마는 그 돈을 메워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안절부절못했다. 엄마도 안달이었다. 이제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 부정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로써 아버지의 스물네 해 공직 생활은 불명예로 끝났다. 퇴직금을 받았으나 그 돈으로 구멍을 막기에는 모자랐다. 나머지 돈은 엄마가 어떻게 융통한 모양이었다. 학교에서 송별회를 마치고 오던 날, 아버지는 우리들 앞에서 오랜만에 울었다. 그러나 끝내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암탉이 울면 지, 집안이 망한다더니 끝내 그 꼴을 보, 보고 말았구나.” 한숨 끝에 이 말을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좋게 말해 아버지는 제상에 오른 선한 양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아버지는 집 안에 들어왔고 말았다. 매달 일만천 원씩 나오는 삼급 상이용사 연금이 이제 아버지의 유일한 벌이었다. 그러나 역시 엄마는 수완가였다. 엄마는 우리 식구를 거리에 나앉게 하지 않았다. 물론 끼니를 거르게 만들지도 않았다. 엄마의 능력으로 우리 식구는 그런대로 옛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직 경제권이 전폭 엄마에게로 옮겨 간 점이 달랐다. ㉠ 아니, 전에도 경제권은 엄마가 쥐고 있었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34. <보기>의 ㉠를 설명하기 위한 단서를 [A]에서 찾는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윗글에서 [A]는 현실 문제와 관련하여 인물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나’는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서술자이기도 하다. 이는 현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 하나의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의 비판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작가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다는 ‘나’의 생각은, ‘형’에 의해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진단된다.
- ②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냉정’하지 못한 생각으로 치부된다.
- ③ ‘분단’이 아버지의 ‘삶의 근간’을 빼앗아갔다는 ‘형’의 생각은, ‘나’에 의해 ‘무력의 길’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 ④ ‘젊은 애들’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둘러대’는 말로 폄하된다.
- ⑤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나’의 생각은, ‘아버지’에 의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로 인한 도덕성의 상실로 비판된다.

## 35. 밑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청렴결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 ② ‘아버지’는 인간의 개성을 억압하는 이념에 대해 비판적이다.
- ③ ‘엄마’는 ‘아버지’의 퇴직금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 ④ ‘아버지’는 학교 공금을 빼내 쓴 일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했다.
- ⑤ ‘아버지’와 ‘엄마’는 고향을 잃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3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처지와 가치관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37. &lt;보기&gt;는 [B]를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공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이다.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lt; 보 기 &gt;

## S# 91 안방

아버지 :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당신 생각은 정, 정직하지 못해.

엄마 : (애원조로) 아 내가 뭐했는데. 보름 안으로 꼭 채워준다고 했잖아. 이번만 좀 어떻게 해줘, 응?

아버지 : 그게 중, 중요한 게 아니야. 애, 애초에 공금을 빼낸다는 생각이 자, 잘못이라니까.

엄마 : (목소리를 높이며 빠르게) 그 돈이 없으면 우린 파산이야. 내가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 우리 네 식구 모두 죽어야 한다고. 아님 내가 감옥살이 하는 동안 혼자서 고고하게 잘 먹고 잘 살든가!

아버지 : .....(묵묵부답, 집을 나선다.)

## S# 92 며칠 후, 안방

아버지, 두툼한 돈봉투를 엄마에게 건넨다. 화색이 도는 엄마의 얼굴과 침울한 아버지의 표정 교차. 화면을 분할하여 각각의 얼굴 C. U.\*

## S# 93 어느 날 밤, 형제의 방

아버지의 취한 모습. 인사불성이 되어 ‘끝장이다’를 반복하며 형제에게 술주정하는 아버지. 말리러 온 엄마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정을 한다.

## S# 94 보름 후, 안방

아버지 : (안절부절못하며) 도, 돈을 채워주겠다는 날인데.....어떻게 된 건가?

엄마 : (되려 화를 내며) 내가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거냐고. 갖다 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라니깐!

아버지 : (잠시 사이를 두고, 그럴 줄 알았다는 말투로) 그냥 내, 내가 죽어야지. 공금에 손을 대서 나, 낮을 밝히게 되느니 주, 죽는 게 낫겠어.

\*C.U. : 시나리오 용어의 하나로, 어떤 한 부분을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찍는 것을 말함. ‘Close Up’의 약어.

- ① S# 91: '정직'을 생활신조로 삼는 '아버지'의 성격을 고려해서, 원작에서 '아버지'가 다른 인물에게 했던 말을 '엄마'에게도 하는 걸로 했군.
- ② S# 91: '엄마'가 '협박과 울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대화 장면으로 구성해서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군.
- ③ S# 92: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라는 원작의 구절에서 '아버지'와 '엄마'의 심정을 추리하여, 두 인물의 심정 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군.
- ④ S# 93: '아버지'가 '형과 나'를 붙잡고 투정을 하는 원작과는 달리, '엄마'까지 등장시켜 '아버지'가 가족 모두에게 가졌던 불만을 살려 내고 있군.
- ⑤ S# 94: '약속한 보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하나의 시공간을 설정하여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38. 밑글의 단어를 활용하여, '아버지'를 주어로 ㉠을 달리 표현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만큼은 '꿈생원'으로 살지 않았다.
- ②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늘 '깍대기'에 불과했을 뿐이다.
- ③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날강도'가 되는 일만은 극히 꺼렸다.
- ④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항상 '희생자'의 역할을 맡아 왔다.
- ⑤ 아니, 아버지는 언제나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이두병이 큰 아들 관을 동궁으로 봉하고 국호를 고쳐 평순 황제라 하고 개원(改元)하여 건무(建武) 원년(元年)하다.\*

이때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조신이 다시 간하여 태산계량도에 정배 안치하여 소식을 끊게 하니라. 이날 왕부인 모자가 태자 정배되었다는 말을 듣고 망극하여,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을 한가지로 하고자 싶으나 종적이 드러나면 지레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요?” 하며 모자 주야 통곡하더니, 일일은 웅이 황혼에 명월을 대하여 복수할 묘책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 천한지라,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부인 모르게 중문에 내달아 장안 큰 길 위를 두루 걸어 한 곳에 다다르니 관동(冠童)이 모여 시절 노래를 부르거늘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국과군망(國破君亡) 하니 무부지자(無父之子) 나시도다.

문제(文帝)가 순제(順帝)되고 태평이 난세로다.

천지가 불변하니 산천을 고칠소냐.

삼강(三綱)이 물러남이 없으니 오륜(五倫)을 고칠소냐.

맑고 밝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충신원루(忠臣怨淚) 아니시면 소인의 꽃샘이로다.

슬프다 창생들아, 오호(五湖)에 편주 타고

사해에 노니다가 시절을 기다려라.

웅이 듣기를 다함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루 걸어 경화문에 다다라 대궐을 바라보니, 인적은 고요하고 월색은 가득한데 수쌍의 오리와 기러기는 못에 떠 있고, 십 리나 되는 화원에 전(前) 왕조의 경치가 아니더라. 전 왕조의 일을 생각하니 일편단심에 굽이굽이 쌓인 근심 갑자기 생기는지라.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이두병을 대하여 사생을 결단하고자 싶되 강약이 같지 않고 문 안에 군사가 많고 문을 굳게 닫았는지라 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서며 분을 참지 못하여 필낭의 붓을 내어 경화문에 대서특필(大書特筆)하여 이두병을 욕하는 글 수 삼 구를 지어 쓰고 자취를 감추어 돌아오니라.

이날 왕부인이 등불 아래에서 한 ㉠ 꿈을 얻으니 승상이 들어와 부인의 몸을 만지며 말하기를,

“부인이 무슨 잠을 깊이 자나이까? 날이 새면 큰 환을 당할 것이니 웅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소서.”

하거늘 부인이 망극하여 말하기를,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리이까?”

승상이 말하기를,

“수십 리를 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 급히 떠나소서.”

하거늘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웅을 찾으니 또한 없는지라. 대경실색하여 문 밖에 내달아 두루 살펴 보니 인적이 없는지라. 정신이 창황하여 이윽히 중문을 바라더니, 웅이 급히 들어오거늘 부인이 크게 놀라 묻기를,

“이 깊은 밤에 어디를 갔더냐?”

웅이 말하기를,

“마음이 산란하와 월색을 따라 거리에 배회하여 돌아오나이다.”

“아까 꿈을 얻으니 네 부친이 와 이리이리하니, 가다가 죽을지라도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리오. 바빠 행장을 차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용 모자는 급히 길을 떠나고, 이두병은 현상금까지 걸며 이들을 추격한다. 조용 모자는 한 마을에 정착하지만 그곳에서 재가를 권유받은 왕부인이 수치심을 느껴 마을을 떠난다. 왕부인은 삭발을 하고

머리카락을 팔아 돈 다섯 냥을 마련하는데 이것조차 도적떼에게 빼앗겨 조웅 모자는 극심한 기아에 시달린다. 이때 한 중이 먹을 것을 주고 왕부인은 이에 감사를 표한다.

그 중이 웃고 말하기를,

“대국 조충공의 부인이 아니시니까? 일신을 감추어 변형을 굳게 하온들 소승이야 모르리까?”

부인과 웅이 대경실색하여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의 종적이 드러나 예 와 잡히어 원수의 칼에 죽으리로다.”

하여 모자 통곡하며 그 중에게 애걸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잡아 황성에 바치면 천금의 상에 만호후를 봉하려니와 부귀는 세상의 일시 변화라. 광풍에 한 조각 구름 같고 물 위의 거품 같은지라. 일시 영귀를 생각하지 말고 인명을 살려 주소서. 중은 또한 부처 제자라. 어진 도로써 인명을 구제하온즉 후세에 반드시 부처 되올 것이니 었드려 바라건대 존사는 잔명을 구원하소서.”

하며 붙들고 애걸하니 그 중이 웃으며 말하기를,

“부인은 조금도 놀라지 마옵소서. 소승은 부인 잡아갈 중이 아니오니 진정하와 소승의 말씀 자세히 들으소서.”

부인이 정신을 차려 듣기를 다하매 중이 말하기를,

“부인은 살펴보소서. 어찌 소승을 모르나이까? 소승은 부인택 승상의 화상 그리던 중 월경이로소이다. 그때 승  
[A] 상의 화상을 그리웁고 부인에게 보여드리니 천금을 주시기에 가져갔사오니 부인은 어찌 소승을 모르시나이까?”

그제야 부인이 자세히 보니 그때 화상 그리던 중과 거의 흡사하나 세상사를 어찌 알리오?

“천금을 줄 때는 확실했겠으나 분명히 명심한 일이 아니라 이는 기억하지 못하니 존사는 꺼리지 말고 바른 대로 가르치소서.”

하고 긴히 애걸하니 승이 민망하여 위로하기를,

“부인이 유한한 간장을 객중에서 여러 해를 근심하였기로 정신이 이상하여 잊었도소이다. 소승이 또한 명백히 밝힐 증거가 있사오니 가져온 화상을 내소서.”

부인이 더욱 대경실색하여 말하기를,

“빌어먹는 사람이 무슨 화상이 있사오리오? 존사는 무지한 인생을 대하여 숨기지 말고 바른 대로 하소서. 이제는 도마 위의 고기로 죽고 살기는 존사의 처분이오니 임의로 하소서.”

하며 무수히 통곡하니, 중이 절박하여,

“어찌 이대도록 의혹하시나이까? 그때 화상을 그리웁고 부인을 뵈오니 잉태하온 지 칠 삭이웁거늘 짐작하는 도리 있삽기로 부인의 상을 보웁고 앞날의 어려움을 기록하여 화상 등에 넣었사오니 화상을 내어 그 글을 보시면 의혹을 파하고 소승의 허실을 께히 아오리다.”

하니 부인이 내심에 극히 괴히 여겨 그제야 화상을 내어 등에 종이를 떼고 자세히 보니 과연 글을 지어 등에 넣었는지라. 그 ㉠ 글에 하였으되,

꽃같이 아름다운 왕부인이 삭발은 무슨 일이고? 과강 천경과에 거북을 만났도다. 성수는 뉘실고? 굴삼려\* 충혼(忠魂)이라. 복중(腹中)에 끼친 혈육 활달한 기남자라. 공자로 상좌 삼고 변형을 굳게 한들 화상이 불변하거늘 필법조차 고칠소냐?

우서(右書)는 위국 산양 땅 강선암 월경이 근서(謹書)하노라. 경오 추칠월 십오 일 상봉.

이라 하였더라.

— 작자 미상, ‘조웅전’ —

\* 원년(元年)하다: 나라를 세운 해로 삼다.

\* 굴삼려: 초나라의 충신.

39. 밑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이두병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했다.
- ② 웅은 대궐문에 이두병을 욕하는 글을 썼다.
- ③ 왕부인은 꿈을 꾸 후 웅과 함께 길을 떠났다.
- ④ 승상은 송 태자에게 조웅을 돌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 ⑤ 월경은 왕부인이 신분을 감추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40. [A]에서 알 수 있는 인물들의 발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월경과 왕부인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군.
- ② 월경은 왕부인의 사연을 듣고자 하고 왕부인은 이를 피하려고 하는군.
- ③ 월경과 왕부인 모두 서로를 향해 자신의 숨겨진 마음을 조금씩 열려고 하는군.
- ④ 월경은 왕부인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왕부인은 월경의 진의를 확인하려고 하는군.
- ⑤ 월경은 왕부인의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고 왕부인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군.

41.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웅 모자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은 조웅 모자에게 닥친 위기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
- ③ ㉡은 왕부인과 월경의 과거 인연을 확인시켜 준다.
- ④ ㉡은 웅의 비범성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⑤ ㉡은 월경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조웅전’은 유교적 질서와 이념이 훼손된 현실을 배경으로, 영웅적 인물인 ‘조웅’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즉, 질서와 이념의 훼손을 가져온 집단을 제거하고 이전의 질서와 이념을 회복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서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웅’은 비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어린 시절부터 시련-극복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는데, 그때마다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질서 파괴 세력에 대적할 주체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 ① 관동들이 부르는 ‘시절 노래’에는, 유교적 질서와 이념이 훼손된 현실이 반영되어 있군.
- ② ‘전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은, 유교적 질서와 이념의 회복을 위한 중심적 역할의 담당자로서 ‘웅’이 갖춘 자격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이두병을 대하여 사생을 결단하고자 싶되 강약이 같지 않’다는 것은, ‘웅’이 질서 파괴 세력에 대적할만한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하는군.
- ④ ‘왕부인’과 ‘웅’이 ‘일신을 감추’고 ‘원수의 칼’에 죽을 것을 염려하는 것은, ‘웅’이 겪는 시련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월경’이 위기에 처한 ‘왕부인’과 ‘웅’을 돕는 것은, ‘부처 제자’들이 이념의 훼손을 가져온 집단 제거의 임무를 완수하는 다른 주체임을 알려주는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곡(一曲)은 어드매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건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이곡(二曲)은 어드매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3수>

삼곡(三曲)은 어드매오 취병(翠屏)에 잎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에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景)이 없어라 <4수>

사곡(四曲)은 어드매오 송애(松崖)에 해 넘거다  
담심암영(潭心巖影)\*은 온갖 빛이 잠겼어라  
임천(林泉)이 깊도록 좋으니 흥(興)을 겨워 하노라 <5수>

오곡(五曲)은 어드매오 은병(隱屏)\*이 보기 조희  
수변정사(水邊精舍)는 소쇄(瀟灑)함\*도 가이 없다  
이 중(中)에 강학(講學)도 하려니와 영월음풍(咏月吟風) 하리라 <6수>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하상기음 :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귀.

\*담심암영 : 맑은 못 속에 비치는 바위 그림자.

\*은병 : 고산구곡의 하나로 이이가 은거한 해주 고산의 은병정사를 의미함.

\*소쇄함 : 맑고 깨끗함.

43. 다음은 윗글의 구성과 관련하여 탐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통사 구조

○ ‘-곡은 어드매오’가 매 수마다 반복되고 있다. ..... ㉠

B. 공간적 질서

○ ‘일곡’에서 ‘오곡’으로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 <2수>의 ‘관암’에서 <6수>의 ‘은병’까지 이동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 ㉢

C. 시간적 질서

○ <2수>의 ‘해 비친다’와 <5수>의 ‘해 넘거다’가 하루 중의 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 ㉣

○ <3수>의 ‘춘만커다’와 <4수>의 ‘여름 경’이 계절로 대응하고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보기>를 참고해 44번과 45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 보 기 > —

율곡의 자연관에 따르면 자연을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산수의 흥취를 깊이 알아 자연 속에 담긴 도체(道體), 즉 진리를 파악해야 진정한 즐거움인 진락(眞樂)에 이를 수 있다. 즉 율곡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학문을 통해 도학적 이상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44. <보기>를 참고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3수’의 ‘승지’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인 동시에 도체가 내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② ‘4수’의 ‘녹수’와 ‘산조’, ‘반송’과 ‘바람’의 조화는 ‘진락’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5수’의 ‘온갖 빛이 잠겨’ 있는 ‘담심암영’에서 느끼는 ‘흥’은 ‘진락’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④ ‘6수’의 ‘소쇄함’이 ‘가이 없다’는 것은 학문을 통해 도체를 파악하는 길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군.
- ⑤ ‘6수’의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음풍 하리라’는 자연을 즐기는 것과 도학적 이상의 추구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군.

4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수의 흥취를 아는 사람이다.
- ② 진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 ③ 도학적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 ④ 자연을 눈으로만 보지 않는 사람이다.
- ⑤ 도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관  
망

관  
망

관  
망

관  
망